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연구

양미진(楊美珍)* · 지승희(地昇熙)** · 김태성(金泰成)*** · 이자영(李茲嶸)**** · 홍지연(洪知延)*****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부적응 수준을 변별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은둔형부적응 문제의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 문헌연구와 면접조사, 히키코모리 행동 체크리스트(HBCL)를 근거로 총 97문항 척도를 구성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수정된 58문항 척도를 일반 재학생과 은둔형부적응청소년 1,072명에게 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불안, 사회적 기술, 사회적 철회, 대인애민성, 공격성의 5요인, 32문항의 사회성척도가 구성되었다. 개발된 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표준화 절차를 거쳐 부적응 수준에 따라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위험군, 정상군으로 구분하였다.

■ 주요어 :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 척도

* 한국청소년상담원 대외협력홍보팀장

**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연구연수실장

***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 선임상담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연수팀 상담원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심리치료사

I. 서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가족구성의 변화와 교육체계의 변화 등 급속한 사회변화는 우리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으나 인터넷 중독,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진학 및 졸업 후 미취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 또한 양산하였다. 특히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실생활의 부담감은 사회로부터 철회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을 증가시키고 있다. 사회적 철회를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학업부진, 장기적인 학습장애, 잦은 결석, 등교거부, 집단 따돌림, 학업 중단 등 학교부적응과 관련된 문제, 비행, 약물남용, 우울증, 자살,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과 같은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와 극단적인 경우에는 부모폭행, 존속 살인, 타살과 같은 심각한 사회범죄 가능성으로 인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황순길 외, 2005).

청소년의 부적응 유형 중 비사회적이고, 위축된 형태를 은둔형부적응이라고 한다. 이들은 세상을 향해 자신의 두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상처를 주는 세상을 피해, 자신만의 세상으로 숨어버린다. 이들에게 있어 상처를 주는 피하고 싶은 대상은 학교, 친구뿐 아니라 가족도 해당되며, 가족들과의 의사소통 단절 등 관계적 철회를 동반한다. 이러한 관계의 단절로 가족들조차 청소년이 등교 거부 후 은둔기간이 장기화되어서야 그 심각성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지승희 외, 2006).

이러한 은둔형부적응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70년대 이후 일본에서 '사회적 히키코모리'라는 현상으로 청소년기의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일본의 '사회적 히키코모리'란 6개월 이상 방안에 틀어박혀 외부와의 교류를 끊고 지내는 사회적 철회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齊藤環, 1999; 박현숙, 2004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은둔형 외톨이가 10만 명에 이른다는 매체보도를 통해 은둔형부적응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시형 등(2000)은 또래 집단 없이 혼자 지내는 외톨이 청소년과 친구들로부터 명백하게 따돌림을 당하는 왕따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외톨이 청소년들은 공감성, 주장성, 자기조절 등의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대인관계 불안이나 불편감이 높으며,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이 부족하고,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톨이 청소년의 이러한 특징들은 앞서 언급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특징과 유사하다. 이는 공감능력이 또래들에 비하여 낮고 친구관계에서 자신이 먼저 친근감을 표현하여 관계를 시작하거나 주도하는 측면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기존의 문헌들(구본용, 1999; 김창대, 1999;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에서 따돌림 피해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나 은둔형부적응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실태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다. 권해수 등(2004)은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학업중단 이후 14.2%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집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황순길 등(2005)은 '사회적 회피현상을 나타내는 부적응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에서 은둔형부적응을 잠재군과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하였는데, 분석 결과 일반 고등학생 중 7.1%가 잠재군, 2.3%가 위험군, 0.3%가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일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업계나 대안학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비율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위험군인 경우는 사회적 위축이 두드러져 사회적인 영역에서 더 많은 문제를 보이며, 은둔 시에도 심리적 고통감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은둔형부적응 수준을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는 경우 잠재군으로, "친구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음" 항목까지 해당되는 경우 위험군으로,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음", "친구가 없거나 한 명", "학교나 일을 그만둔 적이 있음" 세 가지 항목에 응답한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것으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개념 정의 수준에서의 구분이다. 따라서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변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상담기관에서의 상담사례에 대한 분석과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은 스스로 상담의 필요성이나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은둔경향에 대해 포기상태 혹은 무기력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 계기는 가정의 문제와 급우의 따돌림, 폭력과 학교 성적 등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로서 우울이나 사회적 회피의 경향이 매우 증가된 상태이고, 가족에 대한 공격적인 언어의 사용이나 적개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문제의 양상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회피 및 은둔의 원인과 과정은 크게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위험요인은 은둔형 외톨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조건으로 부적절한 양육방식, 내성적 경향, 지지체계의 빈약이 해당되고, 촉발요인은 직접적으로 은둔에 이르도록 자극하는 사건을 말하며,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나 동기화 부족이 사회 회피의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질병 등의 가정문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6)은 은둔형부적응의 원인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상담가이드북'을 개발하였다. 가이드북에서는 은둔형부적응의 주요 발생 원인을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외동이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자녀간의 양육방식의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온라인 세계의 활성화가 가져온 폐쇄적인 대인관계 형태를 지적하였다. 이 밖의 요인으로 학교

가 은둔형부적응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좌절과 상처로 인해 학교 부적응을 겪게 되며, 따돌림, 친구간의 갈등, 학교 폭력, 학업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학교 및 사회로부터의 철회를 가져온다. 그리고 개인적 특성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각에 예민한 대인예민성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상을 더욱 '확고히' 하며, 친구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불안, 공격성, 사회적 기술의 부족과 사회적 철회 등 개인적 특성은 은둔형부적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존의 문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소년의 은둔형부적응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사회성은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심리적인 상태와 행동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사회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곧 청소년의 은둔형부적응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청소년의 사회성 정도의 평가를 통해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그 수준에 따른 적절한 개입과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위험수준이 높은 은둔형부적응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문제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특성상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며, 사회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자가진단 척도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스스로 자신의 사회성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부적응 수준을 자가진단하기 위한 사회성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문헌연구 등을 통해 1차로 구성된 문항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조사는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중인 은둔형부적응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예비조사는 초·중·고등학생 365명과 은둔형부적응청소년(고위험군, 위험군)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수정 보완된 척도에 대한 본조사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32명(대도시 남 211명, 여 417명; 중소도시 남 173명, 여 92명; 읍면지역 남 69명, 여 70명)과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쉼터의 은둔형부적응청소년 40명이었다.

문항구성 과정에서 조사대상인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기준은 황순길 외(2005)의 기준에

<표 1> 본조사 대상자 특성

	학교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위험군		위험군
남	93명	224명	136명	14명	15명	482명
여	112명	249명	218명	4명	7명	590명
전체	205명	473명	354명	18명	22명	1,072명

근거하였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다, 학교나 일을 그만둔 적이 있다’ 에 모두 해당되는 청소년이고, 위험군의 기준은 ‘등교나 사회적 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경험이 있다, 친한 친구가 없거나 한 명밖에 없다’의 항목 둘 다에 해당되는 청소년이다. 본조사 대상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절차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는 1차 문항완성(15요인, 97문항), 예비조사, 문항수정(58문항), 본조사, 최종문항 확정(5요인, 32문항) 및 타당도 검증 절차를 통해 개발되었다.

1차 문항구성을 위해 문헌연구, 은둔형부적응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 境 泉洋, 石川 信一, 佐藤 寛, 坂野 雄二(2004)의 ‘히키코모리 행동 체크리스트(Hikikomori Behavior Checklist: HBCL)’를 토대로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문항을 구성하였다. HBCL은 가족의 정보를 토대로 히키코모리인 가족의 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서 공격적 행동, 대인불안, 강박행동, 가족회피 행동, 우울, 일상생활 활동의 결여, 이해불가한 부적응 행동, 사회불참여, 활동성 저하, 불규칙한 생활패턴의 10개 요인,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척도 사용에 대한 저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일어 전문가를 통하여 문항을 번역하였고 다른 두 명의 전문가가 검수하는 절차를 거치며 각 문항의 본래 의미가 달라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국내에서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외톨이, 집단따돌림, 친구가 없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은둔형부적응의 사회성과 관련된 불안, 사회적 기술, 편집증, 위축 및 성격적 취약성 등의 추가요인을 추출하였다(이규미, 문형춘, 홍혜영, 1998; 김창대, 1999; 손정우 외, 2000; 이시형 외, 2000; 이규미 외, 2001, 황순길 외 2005). HBCL 10요인과 문헌연구에서 추가된 5요인 등 총 15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1차 문항들이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 중인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기준에 적합한 10명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의 주 내용은 현재의 주요 문제, 은둔하게 된 계기 및 과정 등이다.

면접내용을 근거로 1차 구성 문항 중 적합하지 않은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문항들을 연구자 4명(박사 1명, 박사 수료 1명, 석사 2명)이 검토하여 15 영역(공격성, 대인불안, 강박행동, 가족회피 행동, 우울, 일상생활 활동의 결여, 이해불가한 부적응 행동, 사회 불참여, 활동성 저하, 불규칙한 생활패턴, 불안, 공감성, 주장성, 편집증, 위축, 성격의 취약성) 97문항의 예비조사 설문지가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 '약간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의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완성된 1차 문항을 초·중·고등학생 365명과 은둔형부적응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 전체 97개 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낮은 39개 문항을 제외한 58개 문항이 본조사 문항으로 선정되었다. 본조사는 전국 초·중·고등학생 1,032명과 지역 청소년(상당)지원센터와 쉼터의 은둔형부적응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조사 자료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Watson과 Friend(1969)의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와의 상관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 척도는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잠재적으로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고 손재환(2000)이 수정 및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회피 및 사회불안 척도는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총 28개의 문항으로, 사회적 회피문항과 사회불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총점간 상관의 평균은 .77, Kuder-Richardson 계수는 .94, 4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8이다.

III. 연구 결과

1.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예비조사 분석

예비조사 97개 문항에 대하여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각회전법(varimax)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표 2>는 회전하기 전의 고유치 1이상인 요인과 설명 변량이다. 주성분분석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은 7개였다. 7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40.46%를 설명하고 있다.

97문항 전체의 문항 내적일치도인 Cronbach's α =.95로 매우 높았다.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

<표 2> 7개 요인의 설명변량

요인	고유치	변량비율	누적된 변량 비율
1	21.619	22.287	22.287
2	7.320	7.547	29.834
3	2.812	2.899	32.733
4	2.309	2.381	35.114
5	2.131	2.197	37.310
6	1.640	1.691	39.001
7	1.420	1.463	40.464

부하량이 .3 미만이거나 다른 요인에 적재된 부하량과의 차이가 .1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요인부하량이 .3 이상인 문항이라도 한 요인 당 문항이 너무 많은 경우는 전문가의 합의를 거쳐 제거하였다. 그 결과 전체 97문항 중 39개 문항을 제외한 58개 문항을 가지고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본조사 분석

총 58개 문항의 구성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직각회전법으로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표 3>은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회전하기 전의 고유치 1이상인 요인과 설명 변량이다. 주성분분석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가 1이상인 요인은 5개였다. 5개 요인은 전체 변량의 43.29%를 설명하고 있다.

58개 문항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88$ 로 높은 일치도를 보여주었다. 하위요인별 내적일치도는 .74~.88이었다. 문항선정 기준은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를 우선으로 하되 연구진의 합의하에 요인 내 문항 중 하위요인의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보여주는 문항

<표 3> 5개 요인의 설명변량

요인	고유치	변량비율	누적된 변량 비율
1	6.699	20.299	20.299
2	3.230	9.789	30.088
3	1.639	4.967	35.055
4	1.455	4.409	39.464
5	1.261	3.822	43.286

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요인부하량이 .3 미만이거나 다른 요인에 적재된 부하량과의 차이가 .1 이하인 문항은 제거하였다. 한편으로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특성상 온라인 검사를 실시할 경우를 대비해 효용성을 고려하여 문항수를 줄이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최종적으로 32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5요인의 명칭과 문항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불안(6문항, $\alpha=.88$)으로 공포나 긴장감, 심장박동 등 불안으로 인한 심신의 변화를 묻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두려운 느낌이 든다”,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등이다. 요인 2는 사회적 기술(7문항, $\alpha=.80$)로 공감 및 대화능력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친구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잘 듣는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등이다. 요인 3은 사회적 철회(위축)로 6문항이 포함되었고 내적일치도는 $\alpha=.78$ 이었다. 문항내용은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등이다. 요인 4는 대인예민성으로 7문항이 포함되었고 내적일치도는 $\alpha=.77$ 이었다. 구체적으로 “창피 당한 것을 잘 잊지 못하며 쉽게 상처를 받는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요인 5는 공격성(6문항, $\alpha=.74$)이다. 구체적인 문항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한다”, “고함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 등이다. 최종 5요인 32문항 척도의 요인구조는 <표 4>와 같다.

3.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타당도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SADS)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r=.58, p<.01$). 이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회피 및 불안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본 척도가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중요한 특징인 사회적 철회와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32 문항에 대한 요인구조

	문항	요인부하량				
		1	2	3	4	5
불안	몸이나 마음이 떨린다.	.808	.039	.131	.160	.117
	두려운 느낌이 든다.	.735	.058	.152	.212	.123
	심장(가슴)이 마구 뛰다.	.714	.029	.086	.167	.128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다.	.692	.051	.092	.194	.187
	긴장이 된다.	.654	-.002	.086	.225	.058
	안절부절 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다.	.602	.085	.267	.103	.170
사회적 기술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슬퍼할 때, 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한다.	-.039	.757	.108	-.102	.062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036	.717	.052	.027	-.020
	친구가 자기 문제를 이야기 할 때 잘 듣는다.	.086	.661	.101	-.076	.113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했을 경우,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준다.	-.004	.604	.108	-.069	.114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경우, 안쓰러운 마음을 갖는다.	.024	.573	.139	-.131	.135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한다.	.074	.545	.171	.082	-.067
사회적 철회 (위축)	내가 먼저 말을 꺼내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037	.411	.113	.146	-.195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한다.	.184	.211	.662	.128	.003
	남들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한다.	.158	.256	.646	.167	-.012
	웃을 갈아입지 않는다.	.137	.144	.621	-.091	.169
	목욕을 하지 않는다.	.070	.172	.603	-.093	.103
	방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093	.100	.542	.190	.051
대인 예민성	가족들이 내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092	.031	.540	.138	.152
	창피 당한 것을 잘 잊지 못하며 쉽게 상처를 받는다.	.146	-.076	.069	.670	.036
	누군가에게 비난받으면 몹시 속이 상한다.	.085	-.125	-.056	.653	.087
	내색하지 않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173	-.127	-.007	.638	.088
	조그마한 실수에도 당황하는 때가 많다.	.266	.005	.148	.512	.063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다.	.285	.080	.180	.465	.196
공격성	나는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151	.216	.246	.453	-.038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315	.020	.284	.446	.213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는다.	.080	.041	.072	-.043	.676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다.	.103	.095	.101	.118	.597
	고함을 지르는 경향이 있다.	.045	-.114	-.003	.065	.526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	.154	.136	.194	.228	.500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짜증이 난다.	.240	.079	.193	.278	.497	
과격하게 자기주장을 한다.	.169	.028	.151	-.007	.486	

<표 5> 은둔형부적응을 위한 체크리스트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관계

	은둔형부적응체크리스트				
	불안	사회적 기술	사회적 철회 (위축)	대인예민성	공격성
사회적 회피	.39**	.42**	.51**	.40**	.17**
사회 불안	.37**	.24**	.30**	.48**	.13**

** $p < .01$

4. 은둔형부적응청소년 분류기준

본 척도의 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여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집단을 고위험군, 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정상군으로 구분하였다.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수준인 고위험군의 경우는 그 특성상 피험자를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본 척도의 조사대상이 대부분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고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은 소수였기 때문에, 은둔형부적응 분류기준의 변별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본 척도의 점수와 기존의 3문항 분류기준(황순길 외, 2005)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사회성척도 점수의 분류는 일반적인 이론적 분류기준을 근거로 하였다. 이론적으로 상위 2.5%에 해당되는 표준점수(T변환점수)는 70점으로 이는 일반적으로 문제행동 진단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채택하는 기준이다(김청택 외, 2002).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5개 하위요인 척도점수들의 평균이 50점이고 표준편차가 10점인 표준점수로 변환시켰다. 즉 전체 점수의 상위 2.5% 수준에 해당되면 T점수 70점이 되며 이를 고위험군의 기준으로 하였다. 이렇게 표준점수로 변환하였을 때, 고위험군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평균 점수는 73.75점, 최고 점수는 83.1점, 최저 점수는 70.4점이었다.

I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부적응 수준을 변별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은둔형부적응 문제의 예방 및 개입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은둔형부적응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 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나 우리나라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적 기준은 있지만

부적응 상태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나 체크리스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진단이나 가족의 체크를 통해 은둔형부적응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둘째,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두드러진 특징인 사회성에 초점을 맞춰 부적응 수준을 변별한다는 것이다. 연구 초기에 문헌연구 및 면접조사 자료에서 추출한 요인들과 일본의 히키코모리 행동 체크리스트(HBCL)의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킨 것은 은둔형부적응 수준을 변별하는 다양한 요인을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요인분석 결과 남은 것은 불안, 사회적 기술, 사회적 철회, 대인예민성, 공격성 등 청소년의 사회성, 특히 친구관계에서의 사회성 관련 요인들이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은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친구가 없고, 틀어박혀 있는 고립된 활동, 심리적 불안이나 불안정, 적대감이나 편집성 등 타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심리적 증상을 보인다(황순길 외 2005; 허묘연, 2005). 또한 친구 관계나 대인관계의 어려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지각 등으로 위축행동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위축행동은 주변 인물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부감,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의 결핍, 상호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다(후생노동성, 2004).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이와 같은 특징은 본 사회성척도가 은둔형부적응의 수준을 변별하는 체크리스트로 적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자신의 은둔형부적응 성향을 자가진단할 수 있고, 표준점수 환산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시간적 개념이 뒤바뀐 상태로 방안에 틀어박혀, 타인과의 대화도 하지 않고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이다. 기존 사회성 척도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본 사회성척도는 은둔형부적응 성향 특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가진단하고 그 수준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인식향상과 조기 개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을 잠재군에서 고위험군까지 구분하고 사회성척도를 통하여 수준을 분류할 수 있게 한 점이다. 은둔형부적응이 진단명이 아니고 상태이며 처음에는 친구가 없고 가끔 학교에 가지 않는 행동으로 시작되어 결국은 집안에 틀어박히는 만성적 은둔상태로 발전해가는 것이라면, 문제의 조기발견과 예방활동이 무척 중요해진다. 이런 점에서 은둔형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에게는 본 척도를 통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스크리닝척도로 활용함으로써 조기 발견을 통한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사회성척도 개발과 활용은 청소년의 은둔형부적응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태파악이나 연구를 자극하며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본 척도는 청소년과 주변

사람이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항수가 적고 간편하여 실생활에서의 교류보다는 온라인을 더 선호하는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이나 이들의 부모에게도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회성척도는 자기보고형 척도로서 피험자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면접을 함께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 선정의 한계이다. 은둔형부적응의 고위험군 청소년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 대상자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잠재군부터 고위험군까지의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이 재학 중인 청소년이고 극히 소수의 고위험군 은둔형부적응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척도는 일반 청소년 중 잠재군을 대상으로 은둔형문제의 발달을 조기에 예방하고 개입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험군, 특히 고위험군 은둔형부적응청소년의 경우에는 본 척도를 스크리닝 척도로 활용하고 좀 더 심층적인 검사와 면접을 통해 개입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본용(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제 21회 청소년문제토론포럼 자료집, 7-16.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권일남(2005). 은둔형 청소년(히키코모리)의 지원을 위한 청소년단체 역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오늘의 청소년, 제21권 제6호 통권201호, pp.7-15.
- 권해수, 금명자, 이문희, 이자영, 이수림(2004). 학교밖청소년 욕구조사결과.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50.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창대(1999). 따돌림해결을 위한 가정모델. 따돌림 해결을 위한 현장모델 개발. 제 2회 청소년상담 심포지엄 자료집, 21-33.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김청택, 김동일, 박중규, 이수진(2003). 인터넷중독 자가척도 개발.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부.
- 박영숙(2003). 초기 청소년의 위기측정도구 개발. 정신간호학회, 제 12권 제 4호. 425-432.
- 박현숙(2004). 사회적 히키코모리에 관한 일 연구 : Bowen의 이론을 통해 본 히키코모리 사례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재환(2000). 한국인 사회공포증 척도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손정우, 김은정, 홍성도, 이시형, 홍강의(2000). 청소년 정신과 환자 중 외톨이 혹은 왕따 특성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예비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제 11권 2호. 240-251.
- 여인중(2005). 은둔형 외톨이. 지혜문학.
- 이규미, 구자경, 김은정, 이시형(2001).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제 13권 제 1호. 147-162.
- 이규미, 문형춘, 홍혜영(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상담접근. 개원1주년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특별시청소년종합상담실.
- 이시형, 김은정, 김미영, 김진영, 이규미, 구자경(2000). 외톨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정윤, 최정훈(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제16권 제2호. 251-264.
- 임영식(2005). 청소년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지승희, 양미진, 김태성, 이자영, 홍지연(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지원사업 운영보고서. 한국청소년상담원.

- 허묘연(2005). 한국의 사회부적응 청소년실태 : '사회적 회피현상'을 중심으로. 2005 한·일 국제 심포지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위원회(2005). 청소년백서.
- 한국청소년상담원(2006). 은둔형부적응청소년 상담 가이드북. 한국청소년상담원.
- 황순길, 여인중, 남재량, 장미경, 허묘연, 권해수, 박정민, 손재환, 홍지영(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境泉洋, 石川信一, 佐藤寛, 坂野雄二(2004). ひきこもりの行動チェックリスト(HBCL)の開発及び信頼性と妥当性を検討. 厚生労働省資料集.
- 牟田 武生(2005). 日本における不登校・ひきこもり・ニートの實態と施策、対応の問題点.. 2005 한·일 국제심포지엄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지원방안. 청소년위원회.
- 齊藤 環(1999). 社會的 ひきこもり : 終わらない 思春期. 東京, PHP研究所.
- 倉美勝一(2005). 不登校に對する綜合的な對處. 第15回教師及び専門家のための不登校問題研究會の資料集. 文部科學省.
- 厚生労働省(2002). 地域易學調査によるひきこもりの實体調査. 厚生労働省.
- 厚生労働省(2004). 10代 20代を中心としたひきこもりをめぐる地域精神保健活動のガイドライン—精神保險福祉センタ、保健所、各市などではどう對應するべきか. 支援するべきか、厚生労働省.
- Asher, S. R., Parkhurst, J. T., Hymel, S., & Williams, G.A. (1990). *Peer rejection and loneliness in childhood*. In A.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pp. 253-27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eraman, K. L.(1987). *The clinical significance and assessment of poor peer relations : peer neglect versus peer rejection*. *J Dev Beh Pediatr* 8 : 233-400.
- Cantrell, V. L., & Prinz, R. J. (1985). Multiple perspectives of rejected, neglected, and accepted children : Relation between sociometric statu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84-889.
- Coie, J. D., & Dodge, K. A.(1988). Multiple sources of data on social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the school : A cross-age comparison. *Child Development*, 59, 815-829.
- French. D. D., & Waas, G. A. (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 age children :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56, 246-252.
- Hecht, D. B., Inderbitzen, H. M. & Bukowski, A. L.(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status and depressive symptom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6, 153-160.

Lubin, K. H., LeMare, L. J., Lollis, S.(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 Peer Rejection in Childhood. Asher AR, Coie JD(Ed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7-249.

Newcomb, A. F., Bukowski, W. M., Bukowski, W. M., & Pattee, L. (1993). Children's peer relations : A meta-analytic review of popular, rejected, neglected, controversial, and average sociometric status. *Psychological Bulletin, 113*(1), 99-128.

* 논문접수 2007년 5월 10일 / 1차 심사 2007년 5월 31일 / 2차 심사 2007년 6월 20일

* 양미진: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상담 및 교육심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상담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yangmijin@kyci.or.kr

* 지승희: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부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 e-mail: jshee@kyci.or.kr

* 김태성: 강원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프로그램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 e-mail: hycounsel@kyci.or.kr

* 이자영: 한양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연수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 e-mail: jayoung@kyci.or.kr

* 홍지연: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심리치료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심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다.

* e-mail: thinkerbell1010@hanmail.net

Abstrac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Youth Social Withdrawal Scale

Yang, Mijin* · Jee, Seung-Hee** · Kim, Tae-Sung***
· Lee, Ja-Young**** · Hong, Ji-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Korean Youth Social Withdrawal Scale and examine its validity. A preliminary investigation was processed on 97 items of 15 factors which were constituted through literature review, interview, and Hikikomori Behavior Scale(HBCL), expert item evaluation. In the main study, 58 items were selected and administered to 1,072 adolesc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two times and thirty two items of five factors scale were finally selected. The final five factors of the Korean Youth Social Withdrawal Scale were anxiety factor(6 items), social skill factor(7 items), social withdrawal factor(6 items), interpersonal sensitivity factor(7 items), and aggression factor(6 items). Four groups(high risk group, risk group, latent group, and normal group) were classified through validity test and standardization process.

Key words: Korean Youth Social Withdrawal Scale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ssistant Professo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Associate Professo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Senior Counselor

****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Counselor

***** Seoul Child's Hospital Psychological Therapist